

일본 대학생 취업인기 랭킹

□ 일본 대학생 취업시장 개요

- 과거 최저 취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안정과 업계상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반면, 대기업에 대한 선호는 약화되는 경향임
- 매일커뮤니케이션즈 조사에서는 △경기에 관계없이 「안정되고」, 「업계 상위권」 기업을 선호, △「단순히 유명하다는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약화 현상」을 나타난 것으로 분석

□ 이공계 선호기업

- 이공계 랭킹 100에서는 「식품」이 최대, 「전기기기」, 「약품」 인기 상승
- 이공계종합 랭킹100를 보면, 식품 관련 기업이 23사가 랭킹에 들어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여성들의 인기가 높은 것이 특징
- 전기기기 업종에서는 파나소닉, 소니는 물론 미쓰비시전기 등이 랭킹권에 진입, 전기기기업종의 인기가 부활 추세
- 이공계에서 파나소닉이 197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위를 기록
- 파나소닉은 11년 봄 채용계획에서 국내 인재보다도 해외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침을 표명

- 매일커뮤니케이션즈는 “해외인재 적극 채용이라는 뉴스가 글로벌화가 진행하고 있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

〈표 1〉 이공계 취직인기 기업 랭킹

순위	기업명	득 표	작년 순위
1위	파나소닉	338	2위
2위	AJINOMOTO(味の素)	330	1위
2위	소니	330	5위
4위	도시바	323	10위
5위	메이지그룹(메이지제과, 메이지유업)	321	6위
6위	카코메	303	3위
7위	시세이도(Shiseido)	297	4위
8위	JR도카이	285	9위
8위	미쓰비시중공업	285	7위
10위	혼다	278	14위

□ 인문계 학생 선호기업

- 문화 랭킹 100에서는 「식품」, 「금융」, 「상사」 업종의 인기가 상승
 - 문화종합 랭킹100를 보면, 식품은 작년대비 1사 많은 14사가 포함. 은행은 작년대비 1사 증가한 8사, 종합 상사도 7사가 순위에 진입하는 등 상승 경향임
- JTB그룹이 4년 연속 종합 1위 기록. 인문계 상위 5사의 순위 변동이 있었으나, 상위 10사 가운데 8사가 작년과 같은 기업으로 경기에 관계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종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인문계 선호 1위는 JTB그룹, 2위는 ANA(全日本空輸), 3위는 시세이도(資生堂). 8위는 니토리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
 - JTB는 2000년 이래 11번째 1위를 기록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인기기업. 그 이유는 「상품기획력이 강하다」, 「국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다가 여행업계 대표기업」이라는 인식
 - 2위 ANA는 8년 연속 3위에 진입,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답이 많았음
- 세키스이하우스가 37위에서 18위로, 스미토모임업(住友林業)이 125위에서 58위로 약진하는 등 경영실적 회복 기조에 있는 주택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표 2〉 인문계 취직인기 기업 랭킹

순위	기업명	득표	작년 순위
1위	JTB그룹	1,250	1위
2위	ANA(全日本空輸)	892	3위
2위	시세이도(Shiseido)	838	2위
4위	오리엔탈랜드	657	4위
5위	도쿄미쓰비시UFJ은행	642	5위
6위	JR히가시닛폰	570	7위
7위	미쓰이스미토모은행	528	8위
8위	니토리	521	11위
8위	HIS	520	9위
10위	이토추상사	513	16위

〈참고자료〉

朝日新聞(2011.2.9)

毎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就職企業人気ランキング」(2011.2.9)

(http://job.mynavi.jp/conts/saponet/enq_gakusei/ranking/data/kigyourank_2012.pdf)